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6. 2. 2.

영등포구의회 이예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 예 찬 의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새롭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조례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시기에 제정된
조례로,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의 체계와 용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부개정 방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의료·요양·돌봄·주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 근거를 통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도 함께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위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